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영업점 위탁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해외주식 최초 거래고객 또는 2017년 7월 이후 거래 이력이 없는 고객이 월 300만원 이상 해외주식을 매매하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와 별도로 월간 거래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외화 환전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미국 달러(USD)·중국 위안(CNY)·홍콩 달러(HKD)·일본 엔(JPY)·유로화(EUR)를 사고 팔면 환전 금액 제한 없이 환전 수수료의 최대 80% 우대 할인이 적용된다. /김문호 기자 kmh@

KB증권

'투자자문 플라자' 오픈 기념 자문사 초청 투자설명회 실시

KB증권은 '투자자문 플라자(PLAZA)'오픈 기념으로 경품 이벤트 및 우수 자문사 초청 투자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투자자문 PLAZA'는 고객에게 최적화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증권의 자문 플랫폼으로 고객이 온라인에서 직접 원하는 자문사를 선택한 후 포트폴리오, 금융상품 등 맞춤 자문 정보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먼저 KB증권 '투자자문 PLAZA' 오픈 기념 '슈퍼 그뤠잇 이벤트'를 실시한다. 4월 30일까지 '투자자문 PLAZA'를 통해 1000만원 이상 자문상품에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오는 15일에는 한국채권투자자문·에이서투자자문·한국펀드투자자문이 여의도 KB금융타워에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김문호 기자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개설하면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삼성증권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혜진과 이시언을 모델로 '비대면 계좌개설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영상은 한혜진은 미래의 한혜진과, 이시언은 미래의 자신의 아들과 대화하며, 2018년에 참여한 평생무료 캠페인이 장기간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가져왔는지 실감해 가는 컨셉으로 제작됐다.

삼성증권이 이번에 진행하는 온라인 주식 수수료 평생무료 캠페인은 오는 5월 말까지 신규 및 휴면고객이 삼성증권 앱인 mPOP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평생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이벤트다. /김문호 기자

트럼프發 '글로벌 전쟁' 본격화

무역전쟁 불똥 튄 증시, 지수 보단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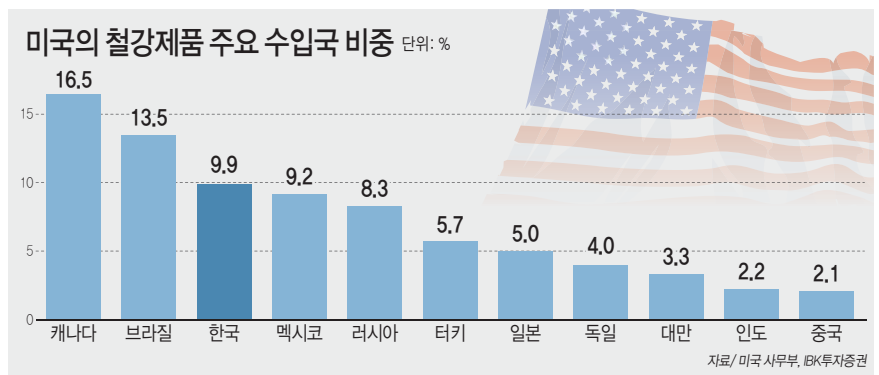
철강·자동차 업종 타격 클 듯
대세 상승장 당분간 없을 전망
기업서 저평가된 종목 선별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보복관세 입장을 밝히면서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증시 변동성도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EU 측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응해 28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매기는 보복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측도 이번 철강 관세 폭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되면 국내 증시는 당분간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비중은 77.7%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평균(58.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무역분쟁 중심에 서 있는 철강, 자동차 업종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변동성 확대… 수급 약화

5일 증시에서 국내 철강주 대부분이 고전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20% 이상 차지하는 세아제강은 최근 2거래일에만 주가가 4% 이상 빠졌다. 같은 기간 현대제철(-3.73%), 세아베스틸(-5.44%)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현대차(-4.95%), 기아차(-3.20%) 등 자동차 업종도 불안감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증시에 각종 변수가 생기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이 연출되면서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대세 상승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보호무역발 무역전쟁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태기 때문이다.

미래 변동성 기대인 변동성지수(VIX) 3~5월물 선물 가격의 기간별 스프레드는 2월 이후 여전히 백워데이션(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대변하고 있다.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 온 수급도 많이 약해진 상태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거래비중은 33%로 역사상 가장 높았지만 하반기 들어 비중은 28% 수준으로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아래로 하락하며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데다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이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목으로 접근해야"

이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지수보다는 개별적인 종목 투자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에는 주가 전체가 상승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 투자 성과가 좋았다면 올해는 기업 실적이 견고하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펀더멘털과 수급이며, 수급 이벤트의 종료는 곧 펀더멘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업황이 견조하면서 이익전망치가 상향된 종목, 지난 3년간 주가 부진으로 밸류에이션(가치) 매력이 있는 종목 등을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다"면서 "소재에서는 금호석유, 산업재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경기소비재는 하나투어 등 개별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장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월 초부터 개별종목 장세를 예상했지만 이제 관심종목 중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 중심으로 중장기적 대응이 유리한 시점이다"면서 "산업·섹터 측면의 큰 흐름에서는 화학 섹터가 좋고, 개별종목 장세에서는 신제품·신사업·신고객과 같은 성장동력이 발생하거나 실적 턴어라운드(전환) 움직임이 뚜렷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대림산업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 4차' 내달 분양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으로 변모
지하철 7호선 연장에 '교통 요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

대림산업은 오는 4월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서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를 분양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는 66~84㎡, 2038가구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66㎡ 202가구 ▲67㎡ 114가구 ▲74㎡A 424가구 ▲74㎡B 120가구 ▲84㎡ 1178가구 등이다.

양주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를 포함해 1117만여㎡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동북부지역 2기신도시다. 정부는 이 곳을 6만 3000여 가구, 인구 16만 3000여명이 거주하는 경기 동북권의 개발거점 도시로 조성한다.

현재 양주신도시에는 이미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1차(761가구)가 입주를 마쳤으며,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2차(1160가구)와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3차(1566가구)가 올해 5월, 내년 3월에 각각 입주한다. e편한세상 양주신도시4차가 공급되면, 앞서 공급된 1~3차(3487가구)와 함께 5525가구의 대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타운으로 변모한다.

양주신도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지하철 7호선 도봉산~양주 옥정 연장사업이 빠르면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4년 개통된다. 또한 지난해 6월 세종포천고속도로 중 구리~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2014년 개통한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통해서도 의정부IC 10분 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까지 20분대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5년 개통되며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예정)과 도보 10분 거리다.

/이규성 기자 peace@

코스닥위원장에 길재욱 교수 내정

코스닥시장위원장으로 길재욱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사진)가 내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5일 제4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길 교수를 신임 코스닥시장위원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길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와 미네소타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5년부터 한양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서울은행 행원 출신으로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금융연구회 위원장, 키움증권 사외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길 교수는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을 분리 선임하게 된 이후 첫 코스닥위원장으로 추천됐다.

길 교수의 코스닥위원장 선임은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손엄지 기자

강원 고성 '금강산오션리조트' 특별 분양

㈜미봉이 금강산오션리조트(사진)를 특별 분양하고 있다.

금강산오션리조트는 강원도 고성과 제주의 해변에 위치해 가족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분양은 확실한 등기제로 1/24 지분 분양으로 연간 30박을 사용 할 수 있다. 분양가는 패밀리형 53㎡ 595만원, 스위트형 99㎡ 795만원, 165㎡ 1395만원으로 현재 선착순 분양 중이다. 선착순 30명에게는 무료 숙박권 20매를 증정한다.

미봉오션리조트는 직영리조트인 고성 금강산오션리조트와 제주리조트 외에도 체인리조트가 강원(설악), 충남(도고), 호남(남원 나주), 영남(경주 부산 울진), 전국 8개 지역의 리조트를 사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제주도 금강산리조트를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제주도내 제휴된 골프장 3곳을 준회원 자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말레시아 몬테레즈골프장과 태국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회원대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02)541-0113 /이규성 기자